

We Are Part of a Good Church: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September 14, 2023

Aloha MPC 'Ohana,

It's September 14, and time for another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A few weeks ago, together with some members of our MPC Outreach Committee, I took part in a Zoom meeting which was hosted by our denomination's<sup>1</sup> disaster relief agency, Presbyterian Disaster Assistance (PDA). The meeting included other island pastors as well as presbytery<sup>2</sup> personnel in California and national denominational partners headquartered in Louisville.

One of the other key participants in the Zoom meeting was Rev. Dr. Kimberly Fong. Dr. Fong is an ordained PC(USA) minister who has been the pastor of a UCC<sup>3</sup> church on Maui for almost twenty years – the Po'okela Church in Makawao.

As you might imagine, PDA placed a high priority on contacting Dr. Fong as soon as word of the Maui wildfires reached them, and disaster assistance was almost immediately sent from our denomination to the Po'okela Church to help those affected by the Kula fire.

And so, during the Zoom meeting, Dr. Fong expressed her admiration for PDA's swift response and her gratitude for the help they were (and still are) sending. "I am so proud to be a Presbyterian," Dr. Fong said. "PDA's response has been amaz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As I listened to Dr. Fong that day, and as I've watched PDA in action myself, I must say that I too feel proud to be a Presbyterian. There are no Presbyterian churches on Maui<sup>4</sup>, yet our denomination is fully engaged on every level in rendering aid to the people there nonetheless. Because that's what PDA does. That's what the PC(USA) does. It's who we are.

I love the PC(USA) deeply. And yet, I will admit that there are times in my own mind when I have little "lovers quarrels" with our denomination. Like many mainline churches, I think our denomination has suffered from more than a few

---

<sup>1</sup> Our denomination is the Presbyterian Church (USA) or PC(USA) for short.

<sup>2</sup> In the PC(USA) a presbytery is a regional body of connected churches. Our presbytery is the Presbytery of the Pacific, headquartered in Los Angeles.

<sup>3</sup> United Church of Christ, the denomination which evolved from the old Congregationalist Church.

<sup>4</sup> This is because back in the 1800s the Presbyterians and the Congregationalists decided not to compete with each other in "frontier" areas like Hawai'i and Alaska. The Congregationalists already had missionaries in Hawai'i so the Presbyterians sent their missionaries to Alaska. (Obviously, the Presbyterians hadn't heard of surfing.)

self-inflicted wounds over the years. There are times when the General Assembly<sup>5</sup> issues a statement or makes a decision that I don't like or agree with<sup>6</sup>. There are times when our presbytery does so too. There are times when I feel like our denominational polity and structure are about sixty years overdue for a major reboot. There are even times when I think we need to rethink the name "Presbyterian" itself because no one in the wider world can spell it (and that *is* an obstacle to outreach, in my opinion, which probably deserves more attention than it gets). There are times when I wish the whole church would change faster. And then again, there are other times when I wish we'd look before we leap.

And yet, for all of its faults and foibles, one thing the PC(USA) is really, really good at is disaster assistance. We are a church which knows how to help people recover and rebuild after disaster strikes. We've been doing it for a long, long time, and we are frankly among the best of the best at it.

We're doing it now on Maui, and we will stay engaged on Maui for as long as it takes. Because that's who we are and that's what we do, as Presbyterians.

And I'm proud of that. I'm proud of my church – of *our* church – the PC(USA). And I hope you are too. Because we are part of a good church which does real good in the world, especially whenever and wherever real people need help most. Like they do on Maui right now. Our church is there to help, in Jesus' name. And for that, I humbly think we all can be justifiably proud – proud of our church, the PC(USA), to the glory of God. Amen.

Ka ho'opili Iesū,  
Pastor Ron

우리는 좋은 교회의 일원입니다: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9월 14일은 또 다른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시간입니다.  
몇 주 전, 저는 MPC 아웃리치 위원회의 몇몇 위원들과 함께 우리 교단의 재난 구호 기관인 [장로교](#\_ftn1) 재난 지원(PDA)이 주최한 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

<sup>5</sup> The General Assembly is the national decision-making meeting of commissioners from all of our denomination's presbyteries.

<sup>6</sup> I'm not required to agree, and neither are you, because Presbyterianism places a high premium of individual freedom of conscience.

그 모임에는 캘리포니아의 다른 섬 목사들과 노회 [2](#\_ftn2) 직원들, 그리고 루이빌에 본부를 둔 전국 교단 파트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Zoom 회의의 또 다른 주요 참가자 중 한 명은 Kimberly Fong 목사였습니다. Fong 박사는 안수받은 미국장로교 목사로 마우이에 있는 UCC [3](#\_ftn3) 교회, 즉 마카와오에 있는 Po'okela 교회의 목사로 거의 20년 동안 사역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PDA는 마우이 산불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Dr. Fong에게 연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쿨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 교단에서 Po'okela 교회로 재난 구호품을 거의 즉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Zoom 회의에서 Dr. Fong은 PDA의 신속한 대응에 감탄하고 PDA가 보내준(그리고 지금도 보내는)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Fong 박사는 “나는 장로교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DA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Dr. Fong의 설교를 듣고 PDA가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나 역시 장로교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해야겠습니다.

마우이에 장로교회가 없지만 [4](#\_ftn4) 우리 교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모든 차원에서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PDA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장로교(PCUSA)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는 미국장로교회를 깊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 속에 우리 교단과의 작은 ”애인 싸움”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많은 주류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단도 수년에 걸쳐 자해한 상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회 [5](#\_ftn5)에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 [6](#\_ftn6).

우리 노회도 그럴 때가 있다.

우리 교단의 정치 체제와 구조가 대대적인 재부팅을 해야 할 시점이 약 60년이나 늦어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넓은 세계의 어느 누구도 이 이름을 철자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로교”라는 이름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는 그것이 봉사 활동에 장애물이 \_되며\_ 아마도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빨리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뛰어오르기 전에 살펴보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점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장로교회가 정말로 잘하는 것 중 하나는 재난 지원입니다.

우리는 재난이 닥친 후 사람들이 회복하고 재건하도록 돕는 방법을 아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고 솔직히 말해서 이 일에 최고 중의 최고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우이에서 이 일을 하고 있으며, 시간이 걸리는 한 마우이에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이고 장로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교회 - \_우리\_ 교회 - 미국장로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선을 행하는 좋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실제 사람들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마우이에서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인 미국장로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고 겸손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카 호오필리 이에수(Ka ho'opili Iesū),

론 목사

\*\*\*

[1](#\_ftnref1) 우리 교단은 Presbyterian Church(USA) 또는 줄여서 PC(USA)입니다.

[2](#\_ftnref2) 미국장로교에서 노회는 연결된 교회들의 지역 기관이다.

우리 노회는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태평양 노회이다.

[3](#\_ftnref3) 그리스도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hrist)는 옛 회중교회에서 발전한 교단이다.

[4](#\_ftnref4) 이는 1800년대에 장로교와 회중교회가 하와이나 알래스카와 같은 “변경” 지역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회중교회에는 이미 하와이에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인들은 그들의 선교사들을 알래스카로 보냈습니다. (분명히 장로교인들은 서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5](#\_ftnref5) 총회는 우리 교단의 모든 노회 총대들로 구성된 전국적인 의사결정 회의이다.

[6](#\_ftnref6) 나는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